# “진각국사 가르침 재조명되길”

## 진각국사 선양회, 화순문화원서 추모다례재



한국 간화선 중흥조인 진각국사 혜심 스님(1178~1234)을 추모하는 다례재가 봉행됐다.

진각국사 선양회(대표 도균)는 4월 20일 화순문화원에서 ‘진각국사 탄신 제840주년 기념 제12회 추모다례재 및 경로위안잔치’를 열고 혜심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다.〈사진〉

이날 행사에는 지역 불교계 스님들과 손금주 국회의원, 구충곤 군수, 강순팔 군의회의장을 비롯해 300여 명의 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식전공연, 개회사에 이어 전통불교식 범패의식과 육법공양이 봉행됐다.

도균 스님은 개회사에서 “오늘날 무한 경쟁 속에 사는 현대인들에게 불교의 참선이 스스로를 치유하는 가르침으로 각광받고 있다”며 “혜심 스님의 간화선 사상과 삶이 다시 조명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각국사 선양회는 10여 년에 걸쳐 진각국사의 사상을 지역사회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으며, 매년 추모다례제와 경로위안잔치를 진행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부안 불자경찰 신행도량 문 열어

## 부안경찰서 경승실 개원




포교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부안경찰서에 경승실이 마련돼 전북서부지역 경찰불자들의 신행생활이 한결 원활해졌다.

부안경찰서 경승실(실장 진성, 내소사 주지)은 4월 23일 부안경찰서 별관 2층에 약 10평 규모의 경승실을 마련하고 개원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법회에는 진성 스님, 개암사 주지 무등 스님, 혜원사 주지 정원 스님, 성화사 주지 시견 스님 등 경승실 소속 스님들과 이동민 부안경찰서장을 비롯한 경찰관계자 및 부안지역 불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진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경승실 개원에 힘을 보태준 이동민 서장을 비롯한 부안경찰서 관계자들께 감사인사를 전한다”며 “새로 개원한 경승실에서 노고에 지친 경찰관들이 부처님 품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민 서장은 “경찰이라는 직업은 매우 외롭고 힘든 직업이다. 경승실에서 잡다한 감정을 해소하고 힐링공간으로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현재 부안경찰서에는 전의경을 포함해 약 180명의 경찰관들이 재직 중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까까머리 동자승도 봉축 즐겨요”

## 대구 대관음사, 봉축 앞서 동자승 삭발 수계식



한국불교대학대관음사(회주 우학)가 불기2562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4월 23일 경내 4층 대웅전 대법당에서 동자승 삭발 수계식을 봉행했다.〈사진〉

삭발 수계식은 어린 아이들이 동자승 단기출가에 동참해 계를 받고, 스님들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자리로, 올해는 한국불교대학대관음사 부설 참좋은유치원 소속 10명 부처님 품에 안겼다. 이들은 삭발식에 이어 가사 장삼을 수하고 연비, 계첩을 받아 어엿한 동자승으로 거듭났다. 한편 10명의 동자승은 달구벌 점등식을 시작으로 대구에서 거행되는 봉축행사에 참석해 홍보대사 역할을 하게 된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시민에 한 발 다가간 봉축燈”

## 부산 중구 · 기장군 등 지역구서 장엄등 밝혀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부산 구 · 군을 대표하는 불교연합회가 각 지역에서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등을 밝힌다. 사진은 지난해 중구 광복동에서 불 밝힌 장엄등 모습.

**지역대표 문화 접근 ‘발돋움’**
**봉축 외 나눔의 장 활용 눈길**
**자체 역량으로 새로운 기획도**
**“앞으로 더 색다른 모습 기대”**

부산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불도로 불리며 금정구, 동래구, 기장군 등 16개 구 · 군이 모여 있다. 서구를 제외한 총 15개의 불교연합회가 조직돼 있으며, 각 연합회는 각종 나눔 봉사활동으로 지역민에게 더 친밀하게 다가가고 포교활동을 펼쳐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특히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각 구 · 군 불교연합회가 지역 특징을 살린 축제를 기획하고 다채롭게 행사를 꾸며 눈길을 끈다.

중구불교연합회(회장 종호)는 ‘2018년 광복로연등문화제’를 5월 11~30일 광복로 거리 일대에서 개최한다. 11일 오후 7시 개막점등식 및 연등행렬을 펼쳐 부처님오신날을 찬탄할 예정이다. 축제기간 동안 중구불교연합회는 7m60㎝ 크기의 대형 미륵불 장엄등과 감은사지 3층 석탑등을 중심 거리에 설치하고, 거리등을 용두산공원 및 부산근대역사관 등 광복로 일대에 확대 설치한다. 또 부산을 상징하는 용두산 공원 부산타워에 포토존과 장엄등을 설치해 부산을 찾는 관광객을 맞는다. 19일에는 용두산공원 에스컬레이터 입구에서 전통문화체험이 진행되며 수영노인복지관 실버밴드(비상)와 청소년문화의집 밴드가 공연 무대도 꾸밀 예정이다.

회장 종호 스님은 “지난해 중구불교연합회를 창립하고 처음 주최하는 연등문화제”라며 “불교를 알리기 위한 체험부스와 청소년 포교를 위해 많은 정성을 기울였다. 앞으로 더욱 발전할 모습 기대해달라”고 관심을 당부했다.

기장군불교연합회(회장 정오)는 ‘기장군민과 함께하는 연등문화축제’를 13일 오후 6시 기장중학교 운동장 및 강당에서 개최한다. 연등문화축제는 △문화체험 및 풍물패 한마당 △성타 스님의 달마 퍼포먼스 △봉축법요식 △열린음악회를 진행하고 경품 추천으로 마무리된다. 특히 기장불교연합회는 1년 동안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TV, 자전거 외 가전제품 등 고가의 선물을 마련해 지역민에게 선물해왔다.

영도구불교연합회(회장 호법)도 지난 4월 7일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는 영도구불교합창제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영도구불교연합회에는 미용사 바라밀합창단, 한마음부산선법합창단, 대원사 대원선재어린이합창단 등 실력을 인정받은 합창단의 역량을 활용해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색다른 기획으로 선보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사상구불교연합회(회장 성문)는 4월 28일 부산서부터미널 애플아울렛 앞에서 점등식을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2회째 여는 사상구봉축연등점등식에서 연합회 스님들은 9m 높이의 대형 석가탑모형등을 밝혔다. 사상구는 광역교통 거점도시로 공항 · 항만 · 육로가 연결된 서부산의 관문으로 불려 하루 교통량이 타 지역에 비해 많은 지역이다. 가장 많은 차량 밀집 지역인 부산서부버스터미널에서 불을 밝힌 석가탑모형등은 부처님오신날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렸다.

# 폐사 아픔, 불사로 달랜 보천사

## 군천 보천사, 삼존불 · 후불탱화 봉안 점안법회

일제강점기 폐사의 아픔을 겪은 군산 보천사가 삼존불 및 후불탱화 조성 점안법회를 봉행하고 전법도량으로서 새 도약을 다짐했다.

군산 보천사(주지 의종)는 4월 21일 극락전 앞마당에서 ‘삼존불 및 후불탱화 봉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군산사암연합회장 도연 스님을 비롯한 지역 스님들과 김관영 국회의원 등 250여 명의 불자들이 참석했다.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은 법어를 통해 “보천사가 자리 잡은 취성산은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던 영취산을 닮아 붙여진 이름”이라며 “의종 스님과 불자들의 노력으로 여법한 불사를 회향해 전법도량으로서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치하했다.

군산사암연합회장 도연 스님은 “보천사는 일제강점기 폐사되는 아픔을 극복하고 대규모 불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신도들의 원력과 뛰어난 신심을 바탕으로 대작불사를 완성한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격려했다.

의종 스님은 “불교의 생명은 포교라는 사실을 가슴속에 새기며 전법과 포교, 교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 보천사는 조선시대에는 이웃 상주사와 함께 600여 스님이 주석할 정도의 대규모 사찰이었으나 일제강점기 가람이 뜯겨져 나가고 성보가 유출돼 폐사되는 아픔을 겪었다.

현 주지 의종 스님을 중심으로 불자들이 협력해 가람을 일신하고 꾸준히 정비하면서 전법도량으로 거듭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재가불자 공부 돕는 〈능엄경〉 강의 열린다

## 부산불교아카데미 6기 개강

도심에서 경전 공부로 다양한 강의를 이끌고 있는 부산열린불교아카데미가 〈능엄경〉 강의를 마련한다.

부산열린불교아카데미(지도법사 원순)는 제6기 원순 스님의 〈능엄경〉 강의를 개설한다. 개강은 5월 14일이며,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부산불교실업인회 법당에서 열린다. 수강료는 월 5만원. 〈능엄경〉 강의는 가을 학기에도 연이어 진행된다.

부산열린불교아카데미는 “〈능엄경〉은 내용이 방대하고 다른 경전에 비해 난해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재가불자들이 도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그동안 강의 개설이 드물었는데 이번 강의에 동참해 감로법을 얻기를 바란다”고 동참을 권유했다.

한편 지도법사 원순 스님은 해인사 백련암에서 성철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해인사, 송광사, 봉암사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했다. 조계종 교재편찬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송광사 인월암에서 안거 중이다. (051)244-0263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선덕여왕을 숭모하며”

## 선덕여왕 숭모회, 문화대축제

선덕여왕 숭모회(회잘 배길순)는 4월 21일 대구 수성못 상화동산 특별무대에서 대구시민과 함께하는 제32회 선덕여왕 숭모 문화대축제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선덕여왕 숭모회가 주최한 축제는 여왕의 행렬을 재연하는 ‘여왕어가행차’를 시작으로막을 올렸다.

배길순 선덕여왕 숭모회 제8대 회장은 “선덕여왕의 삶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시공을 초월해 표상이 되고 있다”며 “오늘 문화대축제가 시민들과 하나 되는 행복한 축제가 되길 소망한다“고 환영인사를 했다.

이어서 호국불교 정신 축제로 승화시킨 선덕여왕을 추모하는 제례의식이 봉행됐으며, 인기가수와 대취타 공연, 황룡사 9층 목탑 쌓기 등 다양한 문화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악령, 귀신 잡는 스님이 있어 화제

**憑依(빙의)와 귀신병(鬼神病)**

은 자신의 생각 의지 마음과 상관없이 악귀에 조종당하여 자신과 가정은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끔직한 사건으로 비화되거나 또는 집안이 망신과 수치로 황폐화되고 사회적으로는 각종 사건사고에 연관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본인 또는 가족 중에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있으면 빙의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으며 청정 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가정에 사랑과 건강함과 평화가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빙의와 귀신병의 주요 증상**

* 혼자 중얼거리고 방에서 누구하고 대화 하듯이 씨부렁거린다. * 환청이 들리고 신경이 예민하여 고함을 지르고 발작을 일으킨다. * 공황장애와 과대망상 우울증으로 자살 하고픈 마음이 자주 생긴다. *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어깨가 한 짐이 되어 무겁고 양쪽 팔과 다리와 허리가 찢어질 듯이 아프다. *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하는데 항상 머리가 무겁고 아픈 두통이 계속 되고 몸 전체가 몸살 난 것처럼 고통스럽다. * 평상시는 순하고 순한데 술만 마시면 난폭해지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상한 사람으로 바뀐다. * 무엇에 홀린 듯이 술을 연속하여 밤새도록 마시거나 또는 줄 담배를 피운다. * 몸속에 귀신이 드나드는 느낌이 들고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잘 나가든 집안이 갑자기 몰락한다. * 술은 마시면 말과 방언이 튀어 나오고 본인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평상시와 다른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한다. * 어느 날 갑자기 과도한 비만이 되어 이상한 몸으로 변했다. * 돌발적인 행동과 발작을 일으키고 자꾸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거나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경우. * 신 내림굿을 하였는데 도리어 더 이상한 사람으로 변했다. * 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 신 내림굿을 하였는데 신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원상복귀를 원하고 있는 사람. * 돌아가신 조상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꿈속에 자주 나타난다. * 계속하여 악몽을 꾸거나 헛것이 보이고 귀신이 보인다. * 귀신하고 사랑을 한다. * 입산수도 하다 오히려 잡귀에 씌어 고통당하고 있다. * 신병과 귀신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 집안에 연속하여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가족 구성원이 아무 이유 없이 줄초상을 당한다. * 종교계통의 일을 하는데 빙의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이 부처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 결혼 적령기가 훨씬 지났는데 결혼을 못하고 있다. *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나간 것처럼 행동한다. * 가족 중에 정상적이지 못하고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을 한다. * 불교 기독교 등 종교와 상관없으며 귀신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결되며 국내와 해외에 거주하여도 본인이 직접 오지 않고 가족이 와도 무방합니다. **위와 같은 증상이 있으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청정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잡귀 마장 사탄 중엄신 조상신등 악마 잡귀의 무거운 짐을 벗어 가정의 건강함과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바랍니다.**

어떠한 악령 귀신도 단번에 제도하여
고통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며
심신의 안녕과 평화를 찾게 합니다.

다른데서 몇 번이나 했는데
안 되더라 하는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심대한 부처님의 가피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귀 대한불교 자비사 상담전화 010-8600-7409** (서울 강남구 대치동 2호선 선릉역 지하철 1번 출구)